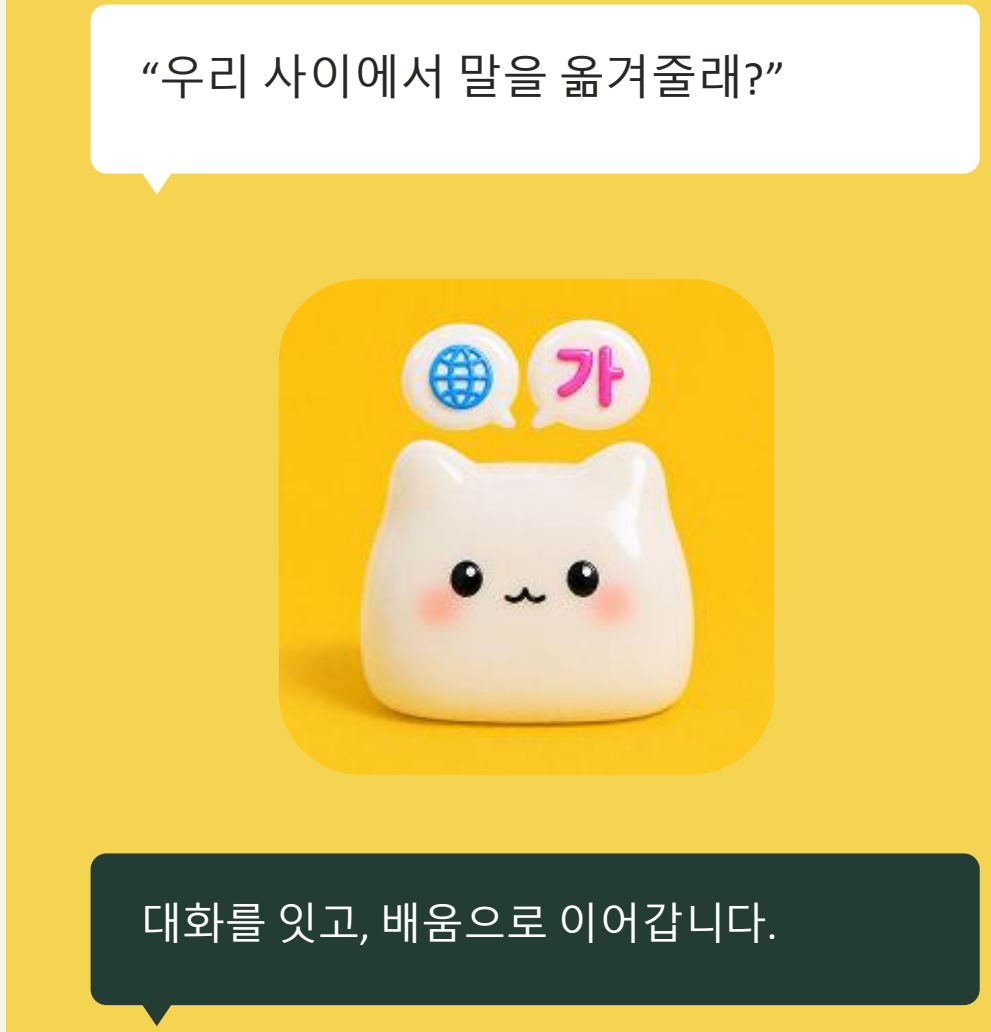
우리 사이의 작은 통역사

번역봇,
언어의 장벽을 허물다!

메신저에서
외국인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통역해 줄 챗봇을 떠올렸습니다.
AI와 함께 만들고, 카카오톡에 출시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도구로 넓혀갑니다.



작은 불편 하나가, 배움의 공간이 되기까지

외국인과의 대화에서 출발해 번역, 영어 퀴즈, 맞춤 회화로 넓혔습니다.

01 문제와 아이디어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과의 대화.
여러 언어가 오가는 단톡방.
그 사이에서 통역해 줄 챗봇을
떠올렸습니다.

02 AI와 구현

문장 하나부터 만들어서

Claude로 초기 코드를 개발하고,
카카오톡에서 번역을 요청하는
흐름을 연결했습니다.
선택 언어는 42개로 넓혔습니다.

03 학습으로 확장

내 말로 써볼 수 있도록

Claude Code로 수준별·맞춤형
영어 퀴즈를 다듬었습니다.
로컬 LLM으로 API 토큰 비용
없이 번역과 회화를 연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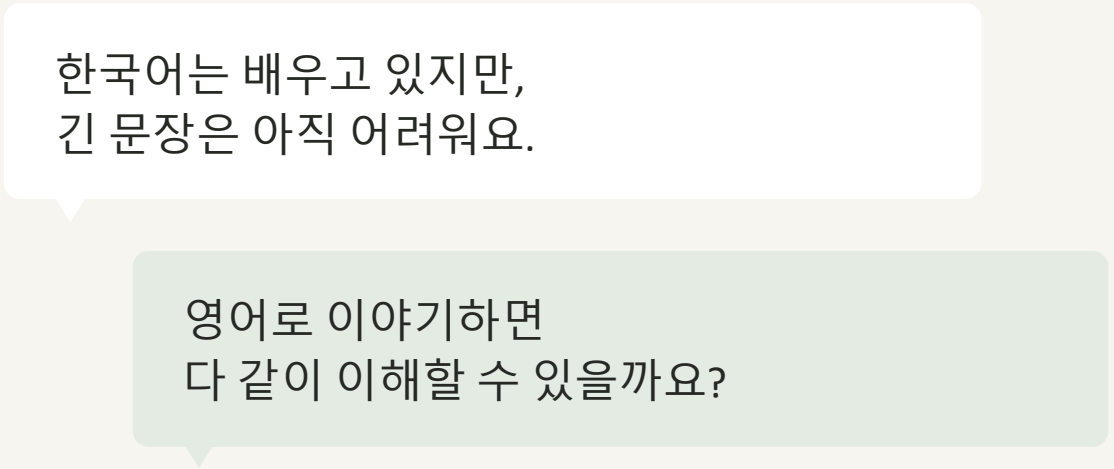
다양한 외국인들과 카카오톡을 하려면

서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같았습니다. 말이 달랐을 뿐입니다.

**한국어를 배운다고 해서
대화까지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한국어가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바꿔도 모두가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이 모인 단톡방에서는
누군가 중간에서 말을 옮겨줘야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 대화

필요했던 것: 우리 사이에서 말을 옮겨줄 누군가

통역해 주는 챗봇이 있으면 어떨까?

대화방에 챗봇을 두고, 필요할 때 불러 원하는 언어로 말을 옮기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익숙한 언어로 보내고



필요한 언어로
뜻을 확인할 수 있게

통역의 중간 역할을 맡을 번역봇

“우리 사이에서 통역해 주는 챗봇을 만들어보자.”

아이디어는 작게, 기능은 한 단계씩

AI를 개발에 활용하고, 서비스 안에서 번역과 회화를 제공하는 데도 활용했습니다.

01	**Claude**	**초기 코드 개발** 문장을 받고, 번역하고, 결과를 보내는 기능부터 구현했습니다.
02	**Claude Code**	**수준별·맞춤형 영어 퀴즈** 개별 기능 개발에서 나아가, 레벨·복습·진도를 함께 다듬었습니다.
03	**로컬 LLM**	**운영 비용을 고민한 번역·회화** 로컬에서 실행해, 해당 LLM의 API 토큰 비용을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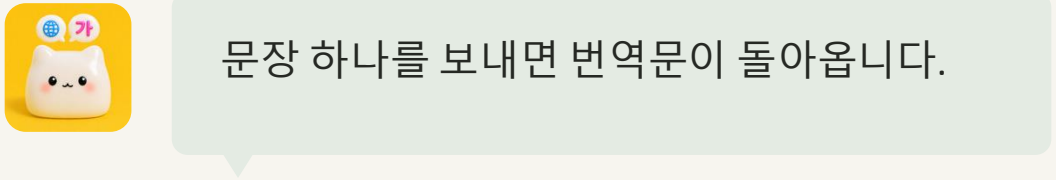
문장 하나를 번역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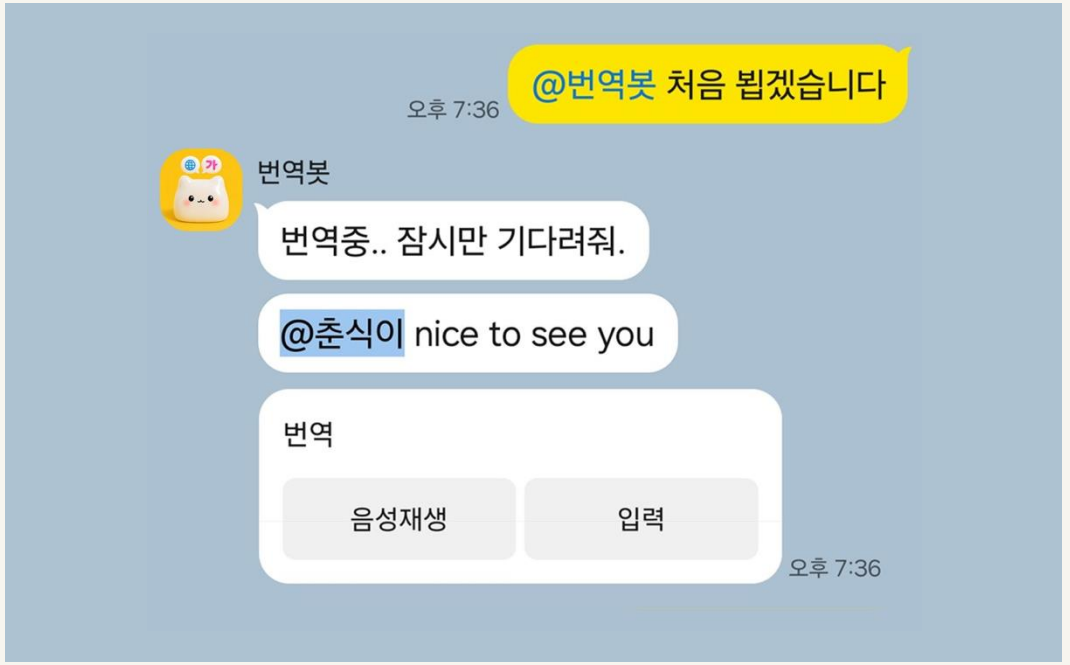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만들기보다, 메시지 하나가 오가는 흐름부터 연결했습니다.

Claude와 함께 필요한 코드를 개발했습니다.

사용자가 보낸 문장을 받고, 선택한 언어로
번역한 뒤 카카오톡에 결과를 돌려줍니다.

머릿속 아이디어가 실제 대화방에서
말을 건넬 수 있는 챗봇이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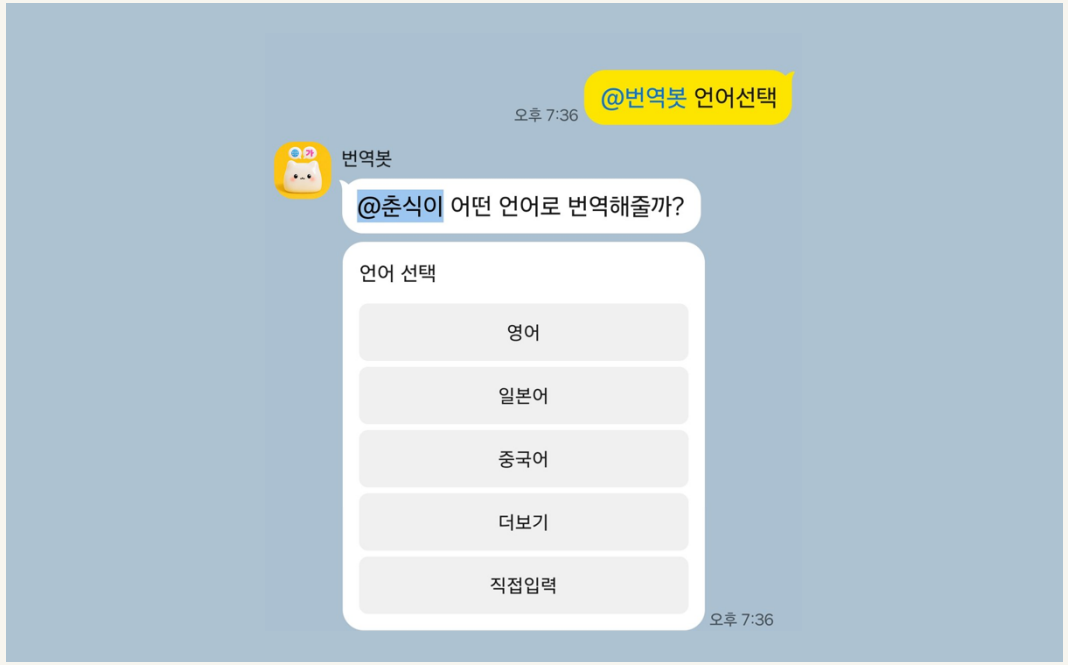


실제 화면 / 번역 요청과 응답

번역봇을 부르자,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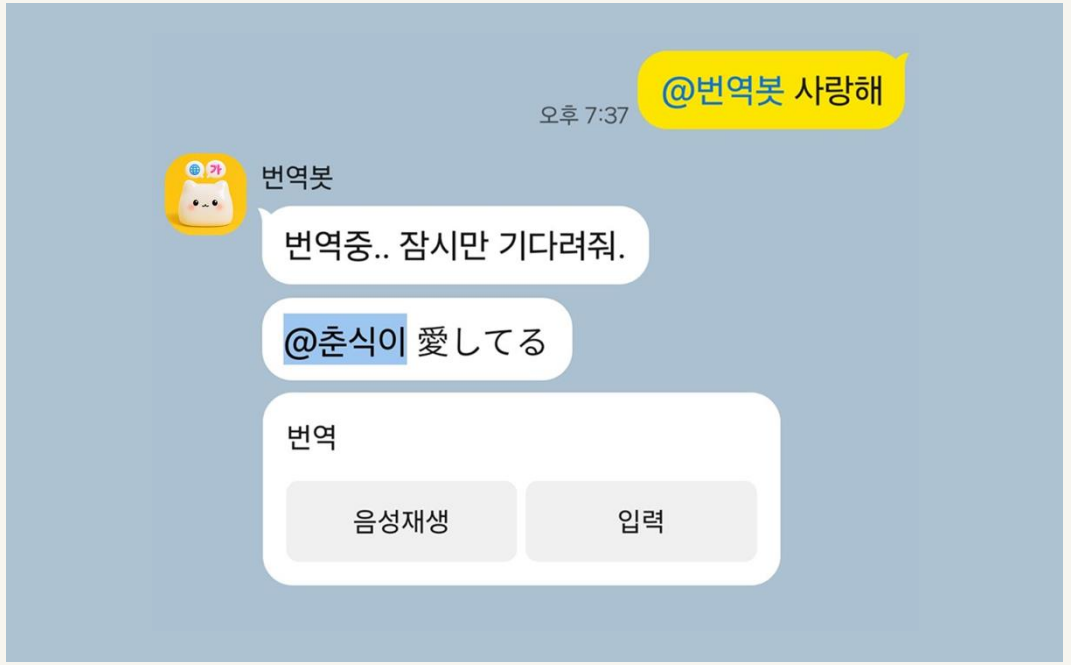
언어를 고르고, 태그하고, 말을 건넵니다. 같은 대화방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01 원하는 언어를 고릅니다



실제 화면 / 언어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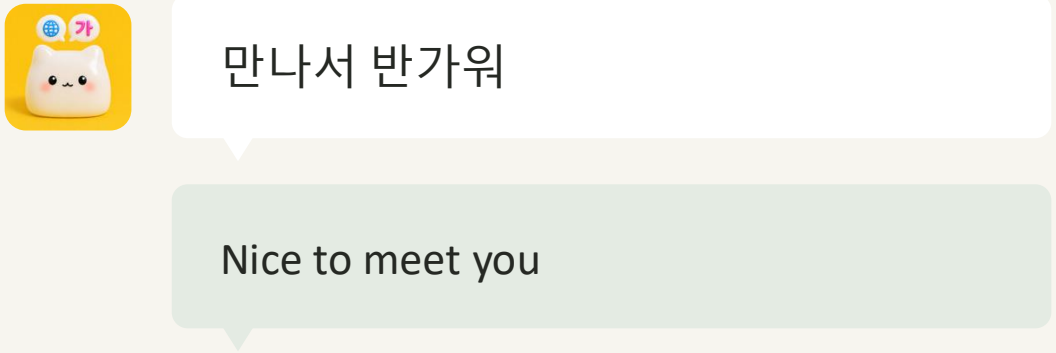
02 번역봇을 태그하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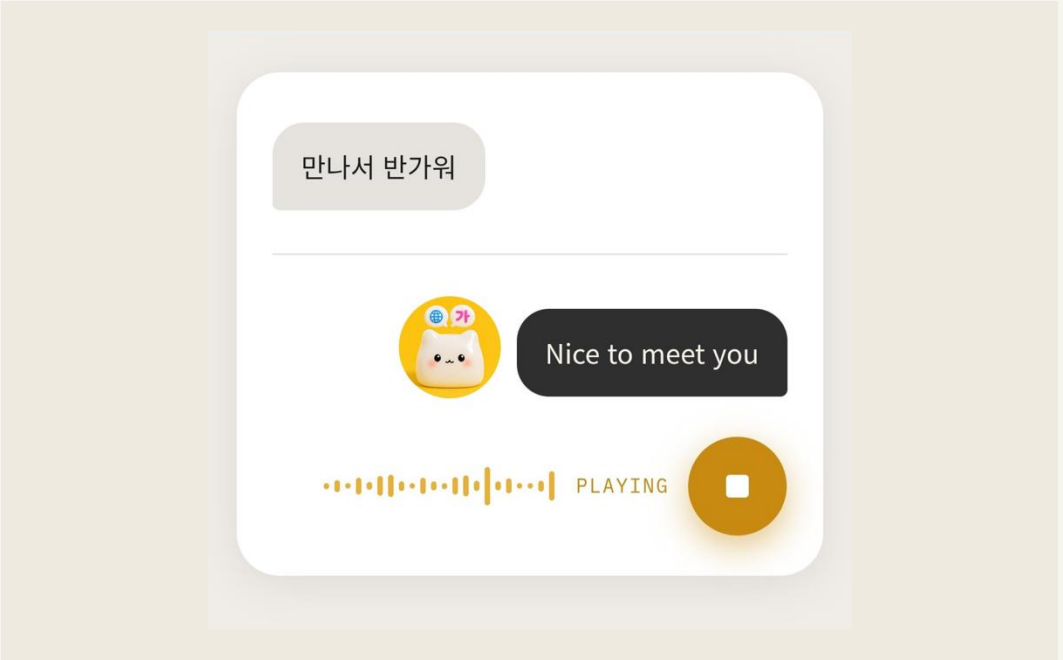
실제 화면 / 일본어 번역 요청과 결과

대화하는 동시에 배울 수 있어요

내가 방금 하고 싶었던 말이라, 뜻을 비교하고 다음 대화에서 다시 써볼 수 있습니다.



뜻을 비교하고, 발음을 들어봅니다.
방금 나눈 대화가 다음 대화의 공부가 됩니다.



제공 화면 / 음성재생으로 발음 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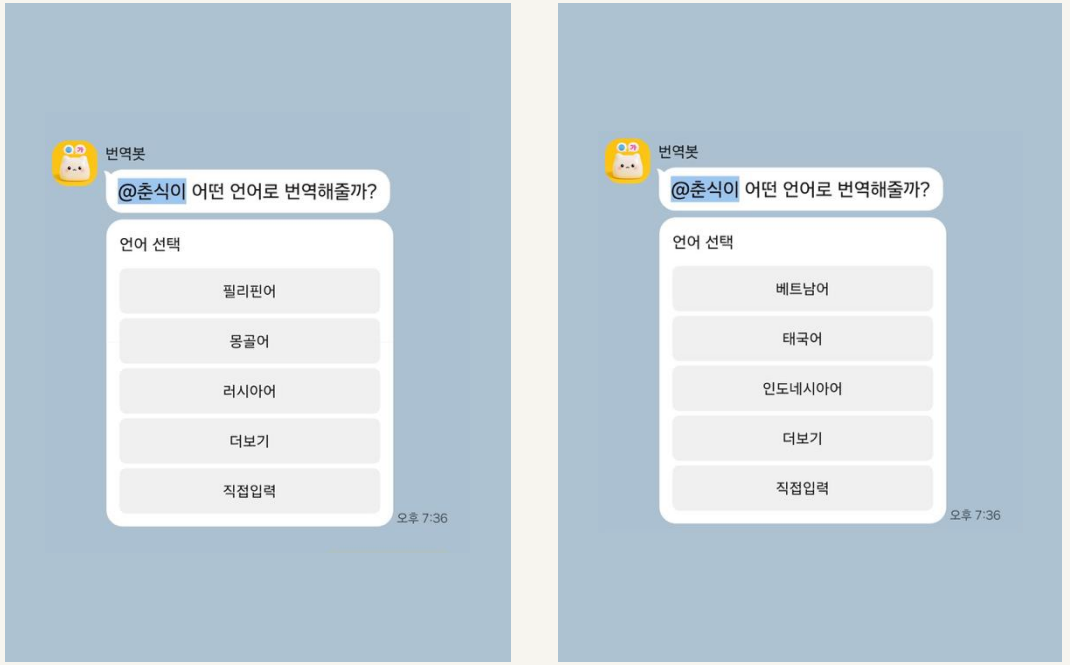
나아가, 42개 언어로 넓혔습니다

더 다양한 외국인들과, 각자 익숙한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2

카카오톡에서 선택할 수 있는 언어 항목

목록에서 고르거나, 문장 앞에 언어를 적습니다.
참여자가 바뀌어도 필요한 언어를 선택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화면 / 언어 메뉴 일부 · 42개는 메뉴 항목 기준

차근차근 언어를 익힐 수 있게

Claude의 개별 코드 개발에서 나아가, Claude Code로 수준별·맞춤형 학습 흐름까지 다듬었습니다.

01 뜻을 고르고

I am hungry.

① 배고파. ② 졸려.

먼저 문장의 뜻을 확인합니다.

02 빈칸을 채우고

나는 배고파.

I am ___.

빠진 단어를 떠올려 봅니다.

03 직접 써봅니다

“나는 배고파.”를
영어로 말하면?

I am hungry.

문장을 내 힘으로 써봅니다.

유형 설명용 예시 문항 · 영어 학습 기능

눈높이를 맞춰서 포기하지 않게

Claude Code로 수준별 레벨과 학습 기록에 맞춘 복습을 연결했습니다. 다시 해볼 수 있는 맞춤형 학습입니다.



"아는 단어는 있는데, 문장으로 쓰기는 어려워요."

시작할 때

내 수준의 레벨 선택

쉬운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게
레벨을 고릅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버틸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틀렸을 때

덜 익힌 표현 복습

오답을 다시 보고 연습합니다.
마스터 모드에서는 풀이 기록을
반영해 덜 익힌 문제를
더 자주 만나도록 했습니다.

잠시 멈췄을 때

멈춘 곳부터 이어하기

저장된 진도로 이어갑니다.
다시 시작할 때마다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던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화가 늘어나도, API 토큰 비용은 0원

번역과 회화를 계속 제공하려면, 사용할 때마다 쌓이는 비용도 풀어야 했습니다.

오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번역을 요청하고 회화를 연습할수록
API 토큰 비용이 쌓이는 구조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로컬 LLM을 직접 구축했습니다.
외부 LLM API 호출 대신 로컬에서 실행해
해당 모델의 토큰 과금 없이 서비스합니다.

API 토큰 비용 0원 · 장비·전력 등 운영비는 별도



비용 고민을 풀고, 맞춤 회화까지

영어 초보야.
카페에서 주문하는 연습을 하고 싶어.
짧고 쉬운 문장으로 말해줘.

회화 요청 예시 · 필요한 상황과 내 수준에 맞춰 연습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말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제 마음을 알아들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외국인과의 대화에서 시작해, 스스로 배우는 일상으로.

카카오톡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챗봇으로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고, 카카오톡 챗봇 출시까지 이어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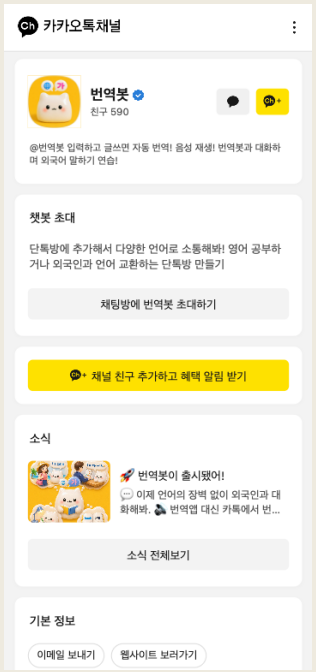


번역봇

대화를 잇고, 언어를 배우는 챗봇

언어를 고르고 번역을 요청합니다.
번역문과 발음을 살펴봅니다.
영어 퀴즈와 맞춤 회화로 연습합니다.

pf.kakao.com/_VxiuuX



외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도, 배운 표현을 직접 써보고 싶은 사람도 카카오톡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이야기할 때

"한국어가 아직 어려워요."

필요한 언어로 번역을 요청하고
같은 대화방에서 뜻을 확인합니다.

여러 나라 사람이 모였을 때

"우리, 어떤 언어로 이야기할까요?"

각자 필요한 언어를 선택해
단톡방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내 말로 표현하고 싶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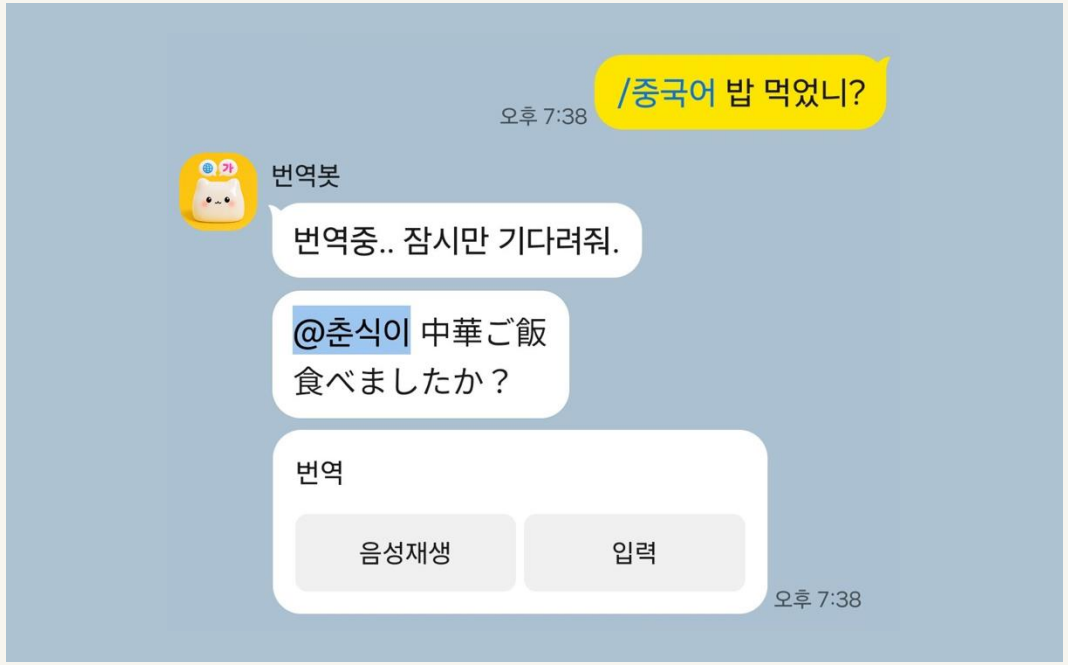
"이제 직접 말해보고 싶어요."

수준별 영어 퀴즈와 맞춤 회화로
필요한 표현을 연습합니다.

활용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 대화

대신, AI가 옮긴 말도 사람이 살펴야 합니다

휴먼 인 더 루프. AI의 결과를 사람이 확인하고 판단할 때, 대화를 안심하고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화면 / 중국어 요청에 일본어 형태로 나온 사례

언어	요청한 언어로 답했는지
의미	전하려던 뜻이 맞는지
말투	대화 상황에 어울리는지

AI가 말을 옮겨도,
그 말을 건네는 마음과 책임은 사람에게.